

UNAI ASPIRE 3기 기자단 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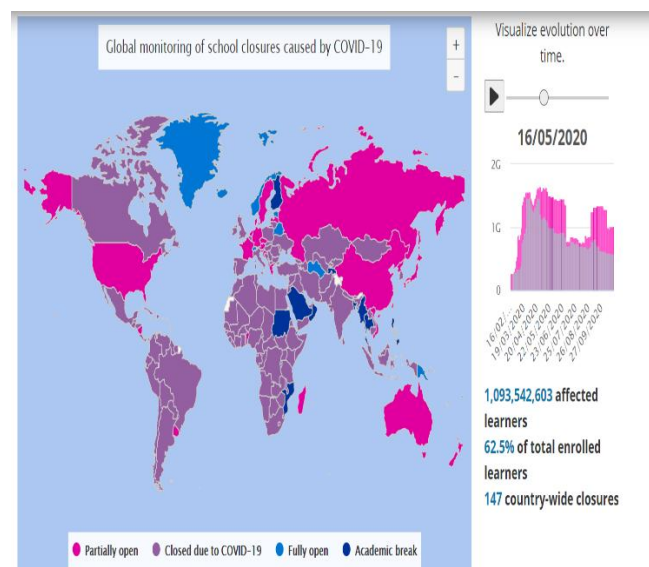
기사 작성 날짜	2020. 10. 30
기사 작성자	이윤정
소재	예) 각 주마다 해당되는 내용 '양질의 교육 측면에서의 SDGs'
형식	칼럼
제목	심화된 교육 불평등
핵심 주제	코로나19는 여러 방면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다. 팬데믹으로 국가 간 그리고 개인간의 불평등을 더욱 두드러졌다. 이번 기사에서는 특히 교육 불평등에 주목한다. 코로나 시대에 UN SDGs가 지향하는 양질의 교육은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바이러스로 심화되는 교육 불평등의 문제에 UN은 어떤 대처를 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기사 개요(아웃라인)	서론: 국가간 (주로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교육 불평등 현황에 대한 정보 본론: 코로나19 상황에서 악화된 교육 불평등의 구체적 예시 제시, 이에 대한 국제적 차원 혹은 UN의 대응 현황 결론: 해결 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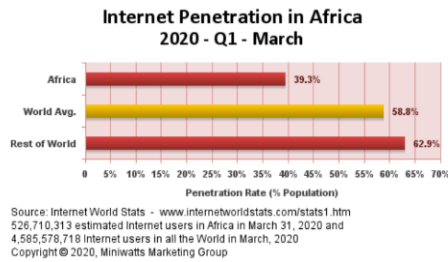
유엔이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가지 중 4번째 항목은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증진을 목표로 한다.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이행은 10번째 목표인 국가내 및 국가간 불평등의 완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유니세프본부 아동 연구조사기관 이노첸티 연구소(UNICEF Office of Research Innocenti)에서 발표한 '이노첸티 보고서 리포트카드 15: 불공평한 출발점_선진국 아동들의 교육 불평등'에 따르면 조사 대상 선진국 41개국에서조차도 출생 지역, 부모의 소득 수준과 같은 환경적 요인들이 아동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고소득 국가내에서도 경제적, 지리적 요인과 학업 성취도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나타나는데 저소득 국가의 교육 불평등은 어떠할까?

저소득 국가가 많이 분포해 있는 아프리카는 교육 불평등이 극심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 사이에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빈곤문제와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아동이 노동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고 성별에 따라 애초에 교육의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아동이 많은 현실이다. 특별히 이번 기사에서는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아 학교를 가는 아동 사이에 나타나는 교육 불평등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데 재난 상황에서 심화되는 교육 불평등 문제에도 더욱 주목해보고자 한다.

~~국가적 불안정을 겪고 있는 국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시기나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 상황에서 교육 문제에 더욱 소홀하기 때문이다.~~

약 10여년 전부터 아프리카에 학비가 비싼 국제 사립학교의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들의 정치, 경제적 불안정은 제대로 된 공교육 확립의 부재로 이어졌고 공교육이 서야 할 자리에 사교육 시장이 대거 진입한 것이다. 학비가 비싼 이 국제 사립학교들은 일반 국립 학교와 시설, 교사의 수, 교육의 질 등 모든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른 교육 격차 문제는 항상 문제로 작동했으나 코로나-19로 학교들이 비대면으로 수업 방식을 전환하며 사립학교 재학생과 국립학교 재학 아동간 격차가 더 심화됐다. 2020년 10월 27일을 기준으로 에티오피아와 모잠비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에서는 일부 제한적 또는 전면적으로 학교를 재개했다. 그러나, 4월부터 대다수 국가에서 학교를 다시 연 10월까지 약 7개월의 기간동안 아이들의 교육 수준은 이미 천차만별로 달라졌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학교 재개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는 학생 수가 533만명으로 예측된다.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기, 인터넷 연결, 전자 기기 등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2020년 3월 기준으로 아프리카의 인터넷 보급률을 39.3%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세계 평균 58.8%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기 공급 또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8년 기준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구 대비 전기 보급률은 47.6%에 그쳤다.

이마저도 외곽 지역으로 가면 31% 수준으로 전기 보급률이 더 떨어진다. 전기와 인터넷 보급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을 진행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다수 발생했다. 케냐의 경우 학생간 경제적 차이로 인해 온라인 학습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자 2020년도 학사 과정을 무효로 하고 내년으로 유예한다는 방법까지 발표했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격차가 발생했기에 이러한 발표까지 나오게 됐을까?

앞서 지난 10여년간 아프리카에 많은 국제 사립학교가 들어섰다고 말했다. 케냐 역시 마찬가지였다. 유치원부터 시작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사립학교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 케냐 학교의 약 1/4은 사립학교라고 한다. 학비가 비싼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부모의 경제 수준이 높은 아이들이다. 이 학생들은 대체로 가정에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받고 있으며 개인 전자 기기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동영상 학습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코로나19라는 동일한 상황에서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환경의 아이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으며 오히려 온라인 수업으로 늘어난 여가 시간에 교과목 외 예체능 수업까지 듣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동일한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 우선, 전기 공급도 안정적인지 않은데다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전자 기기가 가정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자, 케냐 정부는 티비, 유튜브 온라인 동영상 외에도 라디오로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것이 교육 격차를 해소하지는 못했다. 앞서 위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후 극빈곤층 증가 수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만 2260만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래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까지도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노동으로 뛰어드는 경우가 증가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노동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안일의 책임을 맡게 된 학생들이 늘었다. 실제로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 20년간 감소해 왔던 아동 노동 인구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 학생들은 수업을 거의 듣지 못했고 격차는 점점 벌어졌다.

아프리카의 교육 불평등 문제는 아프리카 정치, 경제의 복잡한 구조적 문제가 뒤얽혀 개별 국가의 정부가 단독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유네스코를 비롯해 각종 국제 NGO에서 아프리카뿐 아니라 세계 곳곳의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국제기구의 역할은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온라인 학습이 기존의 불평등을 가속화하지 않도록 보장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의 아동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나 이는 사실상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없다. 유네스코도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각국의 교육부와 협력하고 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나 이미 심각하게 벌어진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국제기구와 NGO만의 노력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힘들고 아프리카 지역의 정치, 경제적인 안정이 함께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아프리카 지역에서 교육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와 국제단체들의 노력은 무의미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정치, 경제의 안정은 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는 힘들어도 국제기구나 국제단체 차원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와 같은 질병 사태뿐 아니라 각종 자연 재해의 피해도 많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긴급 재난 상황에 대비한 교육 대책을 더욱 철저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유네스코는 각국의 교육부 장관 혹은 교육부처 공직자와 해당 국가의 교육 현황에 대한 자발적인 정보 교환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실시되는 것으로 국가가 참여하지 않거나 유의미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려 한다면 이 경우 유네스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다. 교육 지원 사업 협력 기관들의 참여 역시 자발적 참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고 특히 지금과 같은 긴급 재난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

따라서 국제기구나 국제단체의 더욱 철저한 교육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겠다. 재난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가들은 결국 저소득 국가이고 그 국민들 중에서도 경제적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에서 아동의 교육권 보장에 대해 명시하고 있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교육권은 공평하게 보장받아야만 한다.

출처-

<https://en.unesco.org/covid19/educationresponse>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EG.ELCACCS.RU.ZS?locations=ZG>

<https://www.unicef-irc.org/article/1874-live-webcast-launch-of-innocenti-report-card-on-inequality-in-childrens-education.html>

<https://www.nytimes.com/2020/08/05/world/africa/Kenya-cancels-school-year-coronavirus.html>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92801031403020001>